

프랑스 미디어테크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12개의 BMVR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édiathèques in France

- Based on the Twelve case studies of the BMVRs -

임호균* / Lim, Ho-Kyun

임채진** / Lim, Che-Zinn

Abstract

The research made a study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édiathèques based on the twelve case studies of the BMVRs construct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since 1992 in France. The médiathèque is the community center for local residents to collect information, to hav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o shape public opinions. Thus it should have easy accessibility, liberal flow plan and the diversity of the newest information. The architectural elements to offer these facul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édiathèque as the public facility should have the easy flow plan and the high recognition for visitors.

Second, it should be the efficient space for both managers and visitors. thus, it should not need more managers or have the difficulty to move.

Third, it should be planed to support the change of the form of information and the needs of the visitors. It, therefore, should have the wide space with no wall and divide the space by movable furnitures.

Lastly, it should be the space with the natural light, and it does not need the special artificial lights like museums.

It is considered that the planning of the médiathèque should be from the four principles. Additionally, the program of the Médiathèque should reflect the each local traits.

키워드 : 미디어테크, BMVR, 공간, 인식성, 효용성, 가변성, 자연채광

Keywords : Médiathèque, BMVR, Space, Visibility, Compact, Flexibility, Natural ligh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르네상스 이후 개인의 서가나 종교시설의 자료실 형태가 공공시설로서의 도서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후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일반인으로 확장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정보의 양은 정보 분류체계의 발전과 도서관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다.

한편 현대의 정보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와 전자 정보의 발달로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근대적 형태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성에 의하여 미디어테크(Médiathèque)라는

새로운 공공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미디어테크는 정보양식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도서관에서 현대의 새로운 공공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90년 이후 급격히 증가된 미디어테크의 물리적 문화적 성격변화 과정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미디어테크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보관하던 시설에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 및 교육 시설로서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 사회의 도서관의 의미변화와 새로운 문화시설인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여 문화 커뮤니티시설로서 미디어테크의 계획 방향 설정에 건축 공간적 가치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세대간, 이웃 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이사, 흥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디자인학박사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미디어의 발달에 의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1975년 프랑스 캉브레(Cambrai)시의 시립도서관에 미디어테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90년대에 지방도시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12개 BMVR의 건설이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졌다.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지어진 12개의 BMVR은 각 지역의 새로운 건축물로 기능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정착되었으며, 건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공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 198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된 이후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된 12개 도시의 BMVR¹⁾과 10개의 미디어테크를 2006년 8월과 2007년 2월 현장방문조사 및 디렉터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진, 도면, 건설과정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자료 중 본 논문에서는 12개 BMVR로 대상을 한정한다. 그 사유는 12개의 BMVR은 중앙정부에서 각 도시의 커뮤니티 시설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통의 목적 아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프랑스 미디어테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기존 도서관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분석기준을 도출하며, BMVR에 대한 역사적 형성과정과 공간적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12개 BMVR에 대한 공간적 특징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미디어테크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디어테크의 개념과 건축적 요소

2.1. 미디어테크의 개념

1975년 프랑스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영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1975년 프랑스 캉브레(Cambrai)시의 시립도서관에 미디어테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건축물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²⁾

파리 풍피두센타 정보도서관(BPI)³⁾의 디렉터인 마틴 블랑-몽마이웨(Martine Blanc-Montmayeur)⁴⁾는 1975년 BPI가 개관되기 전에 "BPI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은 성격의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즉 목록실, 열람실, 서가의 기본구성을 유지해오던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전통적 도서관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부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1977년 1월 파리의 풍피두센타에 1일 4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멀티미디어에 열려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정보의 자유

로운 접근과 그러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보도서관(BPI)이 개관되면서 미디어테크 개념에 대한 건축적인 시발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BPI의 개관으로 프랑스에서 미디어테크는 차츰 새로운 건축물의 종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도시를 재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의 도구로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의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의 지방분산 정책과 일치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80년대부터 다수의 비블리오테크(Bibliothèque:도서관)-미디어테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도서관 면적은 1980년에 680,000m²(2.46m²/100인)에서 1991년에 1,310,000m²(4.05m²/100인)으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 했다.⁵⁾

<표 1> 시립도서관, 프랑스

	1980	1987	1991	1994	1996
시립 도서관 수	930	1,366	1,885	2,113	2,486
부속 도서관 수	678	791	856	915	979
전체면적 m ²	680,000	1,020,000	1,310,000	1,543,600	1,719,500
면적 m ² / 100인	2.46	3.4	4.05	4.52	4.84

이러한 미디어테크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디어테크는 하나의 도시를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의견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큰 힘을 가짐으로서, 오늘날 미디어테크의 디렉터는 가장 커다란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⁶⁾ 즉 미디어테크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토론하는 장소이며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2. 미디어테크의 건축적 요소

(1) 이용의 편리성과 자유로운 순환동선

프랑스에서 미디어테크는 독서나 자료 열람을 위한 공간의 기능적인 조직을 건축물 속에 구성하는 조직체로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프랑스의 미디어테크는 도심 한가운데서 공공에 열려진 장소로 인식되고,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부로 개방적이고, 투명성과 명확성에 의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대로변이

1)Bibliothèques Municipales à Vocation Régionale: 지역에 적합한 시립도서관

2)François Rouet, La grande muta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8, p.22

3)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du Centre Georges Pompid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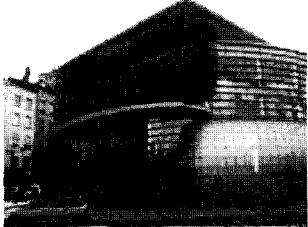
4)Martine Blanc-Montmayeur, Directrice de la BPI,

(-la BPI ne correspondait pas à un modèle identifiable-)

5)François Rouet, op. cit., 1998, p.35

6)Albert Piorot, Nouvelles fonctions, nouveaux métiers: reflexions, Interlignes, 1992, n27-28

나 지역의 광장과 접한 공공장소에 건립되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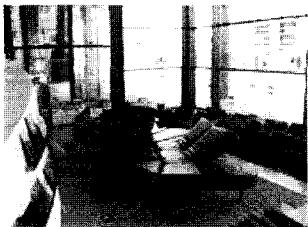
<그림 1> 리옹 미디어테크



<그림 2> 마르세유 BMVR

이러한 열린 장소성과 건축 공간적 특징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용자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사용자가 과밀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각 영역별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자료나 방향 안내표시에 의한 자율적인 선택과 이동이 가능하며 모든 영역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징들은 도서관 분류체계에 의한 공간경계의 완화와 주제별 영역 재편성을 통해서 영역별 사용자의 구분에 대한 공간 경계의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인과 청소년의 공간이 명확한 경계로 구별되지 않고 시각적으로는 연결되면서 서로 다른 순환동선에 의해서 각각의 공간이 구별되지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요소인 음악, 참고자료 등에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동선이 연결되어야 한다.⁷⁾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하여 미디어테크에서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림 3> 렌느 BMVR



<그림 4> 리모주 BMVR

여러모는 동안 물리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가구들은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료열람방식에 따라 디자인된 가구 스타일이 접목되어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3, 4>

이와 같이 사용자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미디어테크에서 공간의 인식성(visibility)은 중요한 요소이다.

(2) 정보의 다양성과 신속성

미디어테크의 본질적인 정신은 모든 자료들이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제라르 헤르츠하프(Gerard Hertzhaft)의 1982년 미디어테크 (Pour une médiathèque)라는 책에 "비블리오테크의 미래는 지적인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서 최대한 개방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⁸⁾

이러한 자료의 개방식 열람방식은 주기적인 자료의 교체와 보충을 필요로 하고, 가장 최신의 자료검색 방법(예: 언어입문, 각종 프로그램, 인터넷, CD롬 등)과 지속적인 서가의 확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것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화된 공간과 현실의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소장한 본질적인 미디어테크의 이미지이다.

자유로운 접근의 개념은 모든 자료나 정보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미디어테크의 첫 번째 임무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정보에 접근과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소장 장서가 미디어테크의 공간에서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⁹⁾

이러한 지속적인 자료의 확충으로 인하여 공간의 가변성(flexibility)과 효용성(compact)은 미디어테크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3) 문화적 관점과 활성화 정책

프랑스의 미디어테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독서클럽, 전시,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은 미디어테크 모델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나 미디어테크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공간인 전시장, 오디토리움, 아뜰리에 등과 같은 공간을 건축물 안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표 3 참조> 이러한 방법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다른 문화단체 또는 기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테크는 경쟁력 있는 구성요소가 되었다.¹⁰⁾

이처럼 프랑스에서의 미디어테크는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각 공간마다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한 밝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7)Anne Marie Bertrand, *L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 acteurs étenus*, Paris Edition du Cercle de la Librairie, 1994. p.63
(ce décloisonnement a montré les limites en matière de confort des usagers. Les pratiques de certains peuvent être perturbantes pour d'autre : la question de la cphabitation des publics et de leurs différents usages de la médiathèque se pose.) 벽을 제거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안락함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다. 어떤 요소들은 다른 것을 방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미디어테크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이용자들의 공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8)François Rouet, op. cit, p.45, (le futur des bibliothèques passe par une ouverture maximale et intelligente aux nouveaux médias)

9)François Rouet, op. cit, p.45, (La médiathèque a pour mission première d'ouvrir à l'usager l'accès, la consultation et l'emprunt des supports de son choix. L'imprimé n'a plus de réelle prééminence.)

10)Isabelle Gosselin, *Bibliothèques municipales et politiques culturelles : Les pratiques d'animation dans l'évolu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émoire de DESS de Paris IX-Dauphine, 1994, p.33

(4) 사용자의 운집

건축적인 변혁과 자료의 증가는 열람자들의 혼잡에 의해 체계적인 방법을 발생시키며, 공공 열람 시설물에 대하여 무관심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새로운 열람자 그룹으로 형성되도록 하였다.¹¹⁾

이러한 공공의 다양성은 사용자들의 확장을 가져왔고, 자유로운 접근은 미디어테크의 중요한 요소로서 대출의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열람석에서도 많은 자료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미디어테크는 새로운 이용자들의 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미디어테크의 역할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도서관의 이용자나 지식인과 연구자 등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미디어테크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문화일반 및 레저 등 모든 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이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심 속에서 다수의 도서관에 현존하고 있다. 이제 미디어테크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보다 미디어테크라는 장소의 이용에 대한 장점과 사람들이 미디어테크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이 직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테크의 모델은 도서관의 모던한 형태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건축물은 완전하게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것은 단지 조직적인 요소의 일부분만 도입했다. 따라서 안 마리 베르트랑의 언급에 의하면 미디어테크의 모델은 상당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인 방법에서는: "미디어테크는 넓은 공간과 오래 머물고 싶도록 편안하고 안락함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자료나 미디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역할의 범위에서 보면: "고전적인 연구소와 현대적인 연구소, 고서적을 통한 열람과 비디오디스크를 통한 열람, 아날로그적인 장소와 디지털적인 장소, 일하는 장소와 여가를 즐기는 장소의 경계."¹²⁾ 등의 서로 상반되는 기능은 공간의 가변성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디어테크가 가져야 하는 기능적인 요소 등을 공간적인 특징으로 정리하면 인식성, 효용성, 가변성, 자연채광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3. BMVR의 프로그램 및 공간특성

3.1. BMVR의 형성

프랑스에서 도서관은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약 4만m²~5만m²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¹³⁾ 이 기간에 1992년부터 2003년 까지 12개 도서관의 건립계획이 1992년 7월 13일 법령¹⁴⁾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전체 건립비용(건설, 가구, 기자재 등 포함)의 40%의 재정적인 지원 아래 12개의 BMVR이¹⁵⁾ 건립되었다.

<표 2> 12개의 BMVR

도시	면적(m ²)	건축가	건설형태	계획	준공
Châlons-en-Champagne	6,571	Paul Chemetov Borja Huidobro	신축	1997	2001
La Rochelle	9,231	Eric Corder Jean-Pierre Lahon	신축	1993	1998
Limoges	14,801	Pierre Ribout	신축	1993	1998
Marseille	21,900	Adrien Fainsilber	신축	1997	2002
Montpellier	14,611	Paul Chemetov Borja Huidobro	신축	1996	2000
Nice	9,681	Francis Chapus	개축	1996	2001
Orléans	7,767	Pierre du Besset Dominique Lyon	신축	1991	1994
Poitiers	10,409	Laurent Beaudoin Sylvain Giacopuzzi	신축	1992	1996
Reims	6,716(신축) +2,977(개축)	Jean-Paul Viguer Jean-Louis Poubert	신축 +개축	1997	2002
Rennes	11,826	Christian de Portzamparc	신축	1994	2003
Toulouse	13,448(신축) +8,953(개축)	Jean-Pierre Buffi	신축 +개축	1997	2002
Troyes	10,587	Pierre du Besset Dominique Lyon	신축	1997	2001

그러나 이러한 BMVR 건립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에 의한 15만m² 면적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독특한 미디어테크 건축물과 도서관 열람공간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 등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2. BMVR의 프로그램

12개 BMVR의 내부 기능적인 면적을 비교해보면 일정한 BMVR의 타입을 볼 수는 없다.<표 3> 그러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열람자들이 공존하고, 많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획정리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BMVR 면적 비교표

(단위:m²)

도시	안내	정기 간행물	이동 열람	일반열람		서고	관리	기타	전시
				자유 열람	연구				
Châlons-en-Champagne	322	180	570	940	230	2,000	715	118: 강당 150: 귀중서고열람실 25: 청각장애인열람실	141
La Rochelle	336	160	483	2,544	266	520	614	163: 강당 285: 다목적실 213: 강당	230
Limoges	481	582	1,232	2,800	1,688	1,151			200
Marseille	569 +473 (9내부 +대출)	369	1,020	4,394	2,314	3,231	2,709	35: 경제자료열람실 855: 강당	413
Montpellier	545	597		3,350		830 (귀중 서고 열람)	2,310	1,810 570: 교육자료열람실 524: 강당 및 전시 110: 다목적실	0
Nice	456	0	629	1,946	872	1,750	738		196
Orléans	195	150	611	1,066	523	2,050	900	165: 강당	90
Poitiers	525	100	700	2,175		140 (귀중 서고 열람)	3,000	375 170: 강당 15: 다목적실 120: 중세귀중서고열람실	120
Reims	505	197	653	2,650	0	400	591	271: 강당	120
Rennes	790	513	620	2,319	961	1,368	1,259	443: 강당	159
Toulouse	531	328	1,129	3,000			2,490	195: 강당 388: 청자도서관	259
Troyes	385	118	835	3,269			900	1,000: 귀중서고열람실	160

11)François Rouet, op. cit., 1998, p.51

12)Anne Marie Bertrand, op. cit., p.74

13)Marc Germain,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n3, 2002, p.39

14)Loi n92-651 du 13 juillet 1992 (법령에 의해서 각 지방 도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12개의 도시를 선별하여 전체 건설비용의 40%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15)Châlons-en-Champagne(샬롱-앙-샴페뉴), La Rochelle(라로셸), Limoges(리모주), Marseille(마르세유), Montpellier(몽펠리에), Nice(니스), Orléans(오를레昂), Poitiers(푸아티에), Reims(랭스), Rennes(렌느), Toulouse(툴루즈), Troyes(트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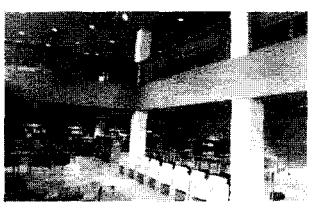
(1) 정기 간행물 공간



<그림 5> 몽펠리에 BMVR



<그림 6> 리모주 BMVR



<그림 7> 렌느 BMVR

정기 간행물을 위한 공간을 살펴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니스에서는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트로와에서는 120m²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위한 공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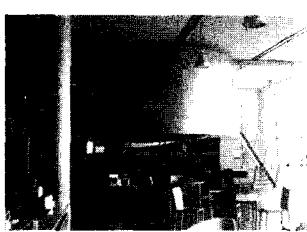
있고, 몽펠리에에는 1층에 600m²의 정보광장(Forum de l'information)공간이 있다.<그림 5> 리모주도 같은 규모이며, <그림 6> 렌느도 복층으로 된 같은 규모의 "시민의 삶(Vie du Cytoyen)" 공간이 있다.<그림 7>

(2) 일반, 아동 열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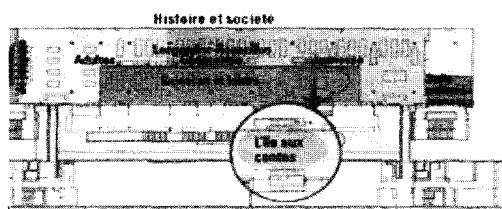
미디어테크 있어서 성인들을 위한 공간과 아동들을 위한 공간은 두 공간간의 이용자들의 특성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들로 배치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열람 공간의 이야기 방(l'heure du conte)처럼 중층을 이용한 공간배치로 전체의 동선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취급되고 있다.<그림 8> 그러나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이 된 열람자들을 위한 공간의 배려는 아직 미비하다.



<그림 8> 이야기 방(l'heure du co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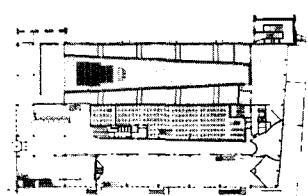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 몽펠리에는 각각의 층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동일한 층에 일반과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공간을 배치함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공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몽펠리에 BMVR

(3) 귀중도서 열람 공간

대부분의 BMVR에서는 귀중도서를 볼 수 있게 했다. 몽펠리에는 중앙 아트리움에서 커다란 원형의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트로아에서는 귀중도서를 1층의 반을 차지하는 면적에 박물관의 전시처럼 가장 눈부신 공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건축가가 Saint-Loup수도원의 공간¹⁶⁾을 재해석한 것으로 트로아에서 중심공간이 되었다. 이 큰 공간은 공간 안의 공간으로 귀중도서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경사진 복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그림 10>



<그림 10> 트로아 BMVR

이러한 공간디자인은 트로아의 건축적 특징이 되었고, 열람자들에게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에 관한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작용하며, 미래의 다른 미디어테크 건축에서 귀중도서공간에 대한 하나의 디자인 지표로서 제시 될 것이다.

3.3. BMVR의 공간특성

이 장에서는 12개 BMVR의 공간적 특징과 볼륨, 내부공간의 구성이 미디어테크라는 현대적인 열람공간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2장에서 언급된 미디어테크 공간적 특징으로 살펴보자 한다.

(1) 인식성(visability)

현대의 도서관 즉 미디어테크는 전문적인 탐구를 위한 기존의 열람자들만을 위하여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테크는 가까운 곳에 있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도서관 즉 닫혀진 수도원 또는 미로 같은 내부 공간, 사원이나 성벽 같은 외부형태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인식성이란 수도원이나 사원처럼 어떤 방식에 의해 신성시되지 않으며, 열람자들을 환대하는 이미지를 가진 시설로서 인식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방문자를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방해가 없이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MVR 프로젝트의 건물 외부에서 내부까지 지각하기 위해 보여지는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다.

외부 입면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전체 유리벽이나 커다란 창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살롱-앙-샹빠뉴, 몽펠리에, 라로셸, 트로아, 랭스은 주 외벽이 완전히 유리로 되

16)길이53m, 폭10m, 높이7m의 수직18칸의 목재서가로 된 Saint-Loup수도원의 공간. 장서는 약 47,000권.

어있어서 내부공간의 특징과 열람자들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랭스의 경우는 전면의 성당이나 도시의 모습이 미디어테크의 유리에 비쳐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살롱-엥-샹빠뉴, 몽펠리에, 라로셸에서는 전면 유리벽이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직사광선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트로와, 랭스는 차양과 브라인드로 직사광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르세유, 툴루즈, 오를레앙, 푸아티에에서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유리 벽면을 차양판과 함께 사용하였다. 푸아티에에서는 고정된 반투명 유리로 된 차양판으로 되어있고, 툴루즈, 오를레昂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차양판이 설치되었다. 마르세유에서는 반투명한 돌을 이용하여 볼 수 없는 빛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리모주에서는 투명성이 홀 상부나 도심 속에 놓인 것 같이 주도로 측에 있는 아이들 열람 공간에 잘 적용이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성이 복잡한 건축적 구성에서 연출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이지만, 인식성은 넓은 범위로 해석되고 통합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살롱-엥-샹빠뉴와 몽펠리에는 열람공간에서 인식성이 높은 투명한 유리외벽과 폐가서고의 불투명한 외벽으로 된 형태는 조형적으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표 4>

건물 내부에서의 인식성은 내부 공간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식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몽펠리에, 마르세유, 살롱-엥-샹빠뉴에서는 실내거리의 개념과 갤러리의 개념으로 다수의 층을 위하여 열린 아트리움의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에서는 주입구 홀부터 각 열람 공간까지 거리의 개념으로 된 동적인 공간이 열람과 대출을 위한 조용한 공간과 대조를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미디어테크에 진입하면서 입구 홀에서 전체적인 공간을 이해하고 가고자 하는 동선이 모호함이 없이 연결되었다. 포아띠에와 리모즈의 여러 층에 걸쳐서 오픈된 공간은 통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의 중정 형태이다. 포아띠에에서는 중정에 램프를 설치하여 전체 열람자의 동선을 처리 하였다. 리모즈에서는 중정이 지하 1층에 있는 로마시대의 문화유산인 바닥 모자이크까지 오픈되어서 열람자들이 미디어테크 공간에서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두번째 중정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 신축된 건축물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수목이 울창한 정원으로 되어 있다. 툴루즈와 렌느에서는 작은 안뜰의 형태로 비어진 공간에 주 수직계단 동선이 있는 다른 형태이다.

(2) 효용성(compact)

도서관은 열람자나 관리자 모두를 위해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관리나 안내를 위한 사람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열람자들이 내부에서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불필요한 동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도서관들이 수직적인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표 4> BMVR, 프랑스

도시	외부	내부	중정	기타
Chambéry				
La Rochelle				
Limoges				
Marseille				
Montpellier				
Orléans				
Poitiers				
Rennes				
Toulouse				
Troyes				

<표 5> 12개 BMVR 수직적 규모

도시명	열람자를 위한 총수	관리자를 위한 총수
Châlons-en-Champagne	2 + 중층	3
La Rochelle	2	1
Limoges	2	3
Marseille	4	5
Montpellier	2 + 중층	1
Nice	1	7
Orléans	3 + 중층	3
Poitiers	4	1
Reims	3	1
Rennes	7	2
Toulouse	5	2
Troyes	2	2

BMVR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공을 위한 열람부분은 대부분 2층 또는 4층 구조로 되어 있으나 니스, 뜰루즈, 렌느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니스는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대형 쇼핑공간으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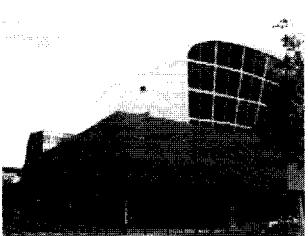
축되어진 1층을 열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11> 5개 층의 뜰루즈와 <그림 12> 7개 층의 렌느는<그림 13> 다른 프로젝트보다 공간 관리의 효용성 면에서 많은 수의 관리자가 필요 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 방식에 의한 단일 용도의 건축물에서 층수의 증가는 특수한 문제보다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우세하다.



<그림 11> 니스 BMVR



<그림 12> 뜰루즈 BMVR



<그림 13> 렌느 BM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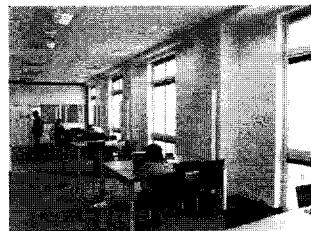
(3) 가변성(flexibility)

도서관에서 공공을 위한 공간은 열람 방식의 변화, 자료제공 방법의 변화와 사용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칸막이벽이 최소화되고 기계 및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조직화된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움직일 수 있는 서가나 가구들에 의해서 내부 공간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가변성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공간들이 모두 같은 형태의 특징이 없는 일 반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MVR 프로젝트들은 흥미 있는 사례이다.

공공을 위한 내부공간에서 그들의 주된 디자인 컨셉은 아동

공간의 이야기 방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변형 벽과 평평한 바닥, 수직 동선과 기계 및 전기덕트의 위치와 입면들에 있다.



<그림 14> 랭스 BM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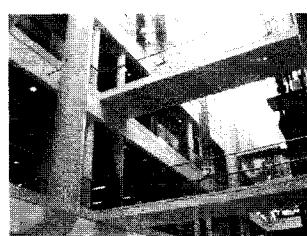


<그림 15> 마르세유 BMVR

공공공간에서 가변성에 적합한 공간 해결방법은 바닥을 이용한 기계적인 통로방식, 천정을 이용한 방법, 체계화된 관을 이용하는 방법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랭스에서만 바닥을 이용한 기계적인 통로방식(테크플레이트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그림 14> 마르세유는 천정에 전기 및 기계설비들이 배치되어 노출되어 있다.<그림 15> 다른 대다수의 BMVR에서는 체계화된 관을 이용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테크플레이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천정에 노출되는 방식보다 더 깨끗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자연채광(natural light)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업공간과 미디어테크의 공간은 가변성, 평평한 바닥, 이동성, 요구에 대한 수용 등의 개념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자연채광은 공공도서관 공간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미디어테크는 박물관과 같은 조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독서를 위한 공간이지 상업적인 공간은 아니다.



<그림 16> 마르세유 BMVR



12개의 BMVR 프로젝트에서는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내부의 중정, 길, 갤러리를 밝혀줌으로서 인식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건물 중앙에 자연채광을 하기에도 좋다. 마르세유 BMVR은 2만 m^2 면적의 큰 규모지만 건축가는 공공공간에 단순히 넓은 중정이나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폭이 넓은 건축공간의 중앙에 빛을 넣기 위해서 아트리움을 형성했다. 이 빛은 각 층의 열람공간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2개의 또 다른 중정을 설치하여 열람공간의 주광기준에는 적합하여 열람자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BMVR의 공간특성을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BMVR 공간특성 (○: 높음, △: 다소 낮음)

도시명	인식성		효용성	가변성	자연채광
	외적	내적			
Chalons-en-Champagne	○	○	△	△	○
La Rochelle	○	△	○	○	○
Limoges	△	△	△	○	△
Marseille	△	○	○	○	△
Montpellier	○	○	○	○	○
Nice	△	○	△	△	△
Oreans	△	○	○	○	△
Poitiers	△	△	○	○	△
Reims	○	△	○	○	△
Rennes	△	△	△	△	○
Toulouse	△	△	△	○	○
Troyes	○	○	○	○	○

4. 결론

BPI의 디렉터인 마틴 블랑-몽마이웨가 "BPI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 같은 성격의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목록실, 열람실, 서가의 기본구성을 유지해 오던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전통적 도서관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부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서 비클리오테크가 미디어테크로 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건설된 12개의 BMVR을 분석하여 프랑스 미디어테크의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12개 BMVR의 공간특성을 인식성, 효율성, 가변성, 자연채광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표 6>과 같으며 빌루즈 BMVR와 렌느BMVR은 자연채광의 질이 효율성, 가변성, 인식성보다도 지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마르세유 BMVR에서는 효율성, 가변성, 인식성이 자연채광보다 지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테크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세대간, 이웃간에 관계를 맺는 장소이며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과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순환동선, 정보의 다양성과 신속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석 도출된 BMVR의 공간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미디어테크에 필요한 공간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원이나 사원처럼 어떤 방식에 의해 신성시되지 않으며, 열람자들을 맞이하는 열린 이미지를 가진 공공시설로서 열람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방해가 없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인식성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 열람자나 관리자 모두를 위해서 공간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관리나 안내를 위한 직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열람자들이 내부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불필요한 동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공공을 위한 공간은 열람 방식과 자료 제공 방법의 변화와 사용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 및 전기시설들이 조직화되고 칸막이벽이 최소화된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움직일 수 있는 서가나 가구들에 의해서 내부공간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네 번째, 자연 채광을 이용한 쾌적한 열람공간이며 이것은 박물관과 같은 조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미디어테크의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며, 미디어테크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François Rouet, La grande muta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8
2. Albert Piorot, Nouvelles fonctions, nouveaux métiers: reflexions, Interlignes, 1992
3. Anne Marie Bertrand, L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 acteurs et enjeux, Paris Edition du Cercle de la Librairie, 1994.
4. Gerard Herhaft, Pour une médiathèque, Editions Promodis, 1981
5. Bernard Stiegler, Sur les questions d'image<Bibliothèques et modernités>, Bulletin d'informations de l'Association des bibliothécaires français, n°140, 1988.
6. Marc Germain,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n°3, 2002
7. Isabelle Gosselin, Bibliothèques municipales et politiques culturelles : Les pratiques d'animation dans l'évolution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mémoire de DESS de Paris IX-Dauphine, 1994.

<접수 : 2007. 7. 3>